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교통도시, 전주'

전주시 대중교통국, 비전 실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등 5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가 2026년을 '대중교통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혁신을 본격화한다.

전주시 대중교통국은 12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교통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5대 추진전략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교통인프라 확충' △더 친절하고 안전하게 '교통 서비스 개선' △더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지속가능 미래교통 전환' △더 질서 있고 쾌적하게 '주차환경 개선과 교통문화 확립'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량행진 서비스 제공' 등이다.

먼저 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 전환을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기린대로(여의광장사거리~한백교, 9.5km) 구간에 도입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지난해 착공에 이어 올해 중앙차로 및 정류장 설치 등 분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2026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노후화된 전주역사 개신사업도 가시적 성과를 낸다. 2026년 상반기 증축역사 우측 구간과 선상연결통로, 후면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면 증축역사를 임시 사용해 우측역사-선상연결통로(열차 플랫폼)-후면주차장을 하나로 연결해 공사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전주시 대중교통국은 12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교통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또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대 광범 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교통 인프라 확대에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저상버스 승강장 확충,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등 대중교통시설 환경개선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붐뮴·용진 방면 전주·원주 직간선제 3단계 노선

개편도 지속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와 모심택시, 심어버스, 1994 특별노선 운영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와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지난해 도입 후 안정적 인 정착단계에 접어든 교통약자 비우량 택시는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분리배차 운영을 통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또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및 함께 무료 공영주차장의 단계적 유료화 전환을 추진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내 집 주차장 찾기 사업 등 민간 참여형 주차정책도 병행한다.

불법 주정차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2026년 수소버스와 전기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 도입하고,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자전거, PM 등 생태교통수단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 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이 밖에도 차량 등록·검사·의무보험 관리 등 차량행진 서비스를 체계화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교통행진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용삼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2026년은 BRT 분공사를 비롯해 전주 교통체계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출퇴근길과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중교통이 가장 편한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등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 '맞손'

전주시-전북교육청,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등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주시 체육진흥 및 컬링 종목의 저변 확대를 위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지원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등 학생 이용 활성화와 △기타 상호 협력에 따른 협력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컬링전용경기장은 오는 2027년까지 화산공원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2,400㎡, 경기면적 4시트로 조성된다. 경기장 건립을 위해 시비 31억원 등을 포함해 140억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전주시의 체육진흥 및 컬링 종목의 저변 확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주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체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 선수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터전이 되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스포츠 경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소상공인·소기업 금융 지원

전주시, 500억원 규모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올해도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한 '2026년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부터 총 2030억 원 규모의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에 기여해왔으며, 올해는 소비침체 장기화와 금융 환경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지난해(330억 원)보다 170억 원 늘어난 500억 원으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업력 3개월 이상인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585점 이상인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업체당 소상공인 은 최대 7000만 원, 소기업은 1억 원 이내(신용보증재단 기 보증금액 포함 소상공인 1억 원, 소기업 1.5억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출 기간 5년 중 3년 동안 대출금리 연 3%(시 2%, 도 1%)를 지원해 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금리는 연 4.85%(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수준으로, 연 3%의 이자가 지원되면 고객 부담 금리는 연 1.85% 이내 수준이다.

또한 올해 사업에는 시와 전북특별

자치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을 비롯해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다수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오는 26일부터 방문 상담 가능하며,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 상담 예약이 필수다.

예약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전북 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은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사업자 및 주주지의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임대사업장인 경우)를 지참해야한다.

사업장 소재지가 완산구일 경우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063-230-3347)을, 덕진구일 경우에는 덕진지점(063-230-3385)을 각각 방문하면 된다.

상담 및 서류제출을 완료한 이후에는 보증 심사를 거쳐 사업체당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재단에서 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을 방문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동물원 설 연휴 정상 운영

전주시는 민족 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을 위해 연휴 5일간 휴무 없이 전주동물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원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은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은 동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 노약자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와 유모차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시는 설 연휴를 맞아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를 찾는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동물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동물원 내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동물사와 관람로를 정비하는 등 쾌적한 관람환경을 준비한다.

동물원 내 놀이시설인 드림랜드도 연휴 기간 휴장 없이 정상 운영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설공단, 설 연휴 한복 입고 승객 맞이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을 운전하는 운전원들이 올해에도 설 명절을 맞아 '한복'을 곁에 차려입고 승객을 맞이한다.

12일 전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연상)에 따르면 바로온 운전원들은 오는 18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3일간 생활환복을 입고 운행에 나선다.

바로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한 이른바 '한복데이' 이벤트다.

탐승하는 승객들에게 운전원들이 일일이 새해 인사도 건넬 예정이다.



공단은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시민은 물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2021년 설부터 매년 명절마다 한복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